

## 미국, 카트리나 재해 지역에서 대체 통신수단 인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에 위성전화와 와이맥스 등 제3의 통신수단 수요가 늘고 있다. 폐허가 된 이 지역에서는 지하에 매설된 통신망은 완전히 붕괴된 반면 하늘을 이용한 위성통신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무선 데이터 통신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위성통신 사업자 글로벌스타는 재해 발생 후 3일간 신규 가입자가 5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 증가분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 초토화된 통신망이 80% 복구되는 데 한 달이나 걸린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가 나온 뒤 생존자와 경찰, 기타 구조대들은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위성전화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위성을 통해 전달된 통신기기는 자연 재해가 지상의 네트워크망을 황폐화시킨 경우에도 여전히 작동했다. 글로벌스타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주지사 사무실에 100대 이상의 글로벌스타폰을 기증했으며 미국 적십자가 이를 전달하고 있다. 이 기술은 하나의 전송포인트를 통해 넓은 지역에 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스출처 : 전자신문

## 독일, '디카 열풍'으로 디지털 인화시장 급증

독일 디지털카메라가 유행하면서 디지털사진 인화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사진산업연맹(Photoindustrie-Verband)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전문 사진관에서 인화된 아날로그사진 개수는 2003년 43억장에서 2005년 26억장으로 감소된 반면 사진관에서 인화된 디지털사진 개수는 2003년의 5억장에서 2005년 14억장으로, 개인 출력 디지털사진 개수는 2003년의 2억 6천만장에서 2005년 7억 5천만장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 출력 디지털 인화시장의 확산은 사진 출력 기능을 갖춘 프린터기의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한 사용의 편리성으로부터 기인된다. 이는 사진 인화 부품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끔 그래픽 출력에만 사용했던 비싼 컬러 잉크의 소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충전지로 사용될 수 있는 모바일 사진 프린터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사진 프린터는 결혼식이나 일반회에서 축하연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책상이나 PC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뉴스출처 : KOTRA

| 새 | 책 | 안 | 내 |

## 50대, 20년은 더 일할 나이 《경제수명 2050시대》

《경제수명 2050시대》는 평균수명 90~100세인 시대에는 과거의 경제활동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 책은 이태백, 삼삼선, 사오정이라는 유행어가 판을 치는 시대에 맞춰 각 연령별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더욱 설득력 있다. 총 5권으로 구성된 《경제수명 2050시대》 시리즈는 20대는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고, 30대는 전문성과 역량에 집중해 고유한 자신을 만들어 승부를 걸라고 충고한다. 40대는 인생의 정점에서 한번 더 도약하고, 50대는 앞으로 20년을 더 뛰어야 할 '후반전'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경제수명이 긴 사람들은 도전, 열정, 성실, 강인함, 인맥, 전문성, 리더십, 자신감, 준비성, 프로정신 등의 공통점을 두루 갖췄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 가치혁신연구소 권영실 소장, 여주대학 전자디자인 계열 홍성민 교수, CMI연구소 전미옥 대표, 숙명여자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문형남 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직업전문학교 박양근 원장 등 5명의 필자가 각 연령대별로 적절한 경제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거름 펴냄)



## 성공한 40개 중소기업에서 배우는 성공전략 《강한 중소기업 DNA가 다르다》

매일경제 기자 9명이 밝힌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성공 전략서, 핸드폰의 액정 화면이 컬러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바꾸고 액정 화면의 색깔을 다양하게 만든 코야모직, 목걸이 대신 MP3를 달게 한 레인콤,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든 신지소프트 등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성공전략이 궁금했다면 《강한 중소기업 DNA가 다르다》를 적극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인 40인의 성공전략을 '발상의 전환이 성공을 만든다', '노력을 아끼지 말고 열정으로 승부하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길러라', '한 우물을 파라', '창의력을 키워라' 등 5개의 테마로 나누어 전달한다. 알토란 같은 40개 중소기업들의 성공전략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성공담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유형에 맞는 성공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지복 펴냄)

